

EPS

한국의 일상생활

한국의 인사 예절

한국에서는 상대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제스처입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가볍게 들거나 흔들어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은 인사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악수를 하며 인사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팔이나 오른손을 받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에서 알뜰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팁

대형 마트에서는 종종 ‘1+1, 2+1’ 또는 ‘주말 특가’와 같은 할인 행사를 열어 식료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싸게 판매합니다. 마트에서 나누어 주는 전단지를 통해 할인 상품 및 할인 금액, 추천 상품 등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싸게 구매하거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는 대부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도시

한국에는 한 개의 특별시(서울)와 한 개의 특별자치시(세종), 여섯 개의 광역시(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의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며, 이 지역에는 5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과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세계적인 규모의 부산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인근에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 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 울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남동쪽인 경상도 지방에는 섬유 산업의 도시인 대구가 있고, 남서쪽의 전라도 지방에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광주가 있습니다.

한국의 좌식 문화

한국인들은 방이나 마루의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식 문화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좌식 문화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좌식 문화가 현대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돌은 바

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도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밖에서는 주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자주 따뜻한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쉬기도 합니다.

양력과 음력

한국의 달력을 보면 큰 숫자와 함께 작은 숫자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숫자는 양력을 기

준으로 한 날짜이고, 작은 숫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날짜입니다. 한국에서는 양력과 함께 음력을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달력에도 양력과 음력을 함께 표시해 줍니다.

회사나 학교, 정부 기관 등의 일정은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 등 국경일이나 법정 공

휴일도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가 존중되는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일이 모두 공휴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양력을 기준으로, 부처님의 탄생일(4월 8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기념합니다.

직장인의 하루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구내식당이 없으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먹습니다. 점심은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 회사에서 하지 못한 업무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는 야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해 외국어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날씨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3월~5월)은 따뜻하며, 벚꽃, 영산홍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많이 핍니다. 사람들은 봄맞이 꽃구경도 가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즐깁니다.

여름(6월~8월)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변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을(9월~11월)에는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형형색색으로 곱게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 학교 운동회나 축제 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겨울(12월~2월)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매우 춥고, 강물이 얼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에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나 스케이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3한4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보다 시원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높임말과 반말

한국어에는 높임말(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며, 반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처음 만난 사람이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높임말을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높임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밥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으로 쌀로 짓습니다. 국은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나 나물과 같이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보통 반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는 외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터치스크린을 통해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메뉴와 개수, 옵션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메뉴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주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덕분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판매점

무인 판매점은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보통 고

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고급화된 센서, 카메라,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등을 활용한 매장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사전 결제를 하면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무인 판매점은 무인 슈퍼, 무인 편의점처럼 음료수, 과자, 컵라면, 생필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무인 생수 판매점, 무인 계란 판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라면 판매점, 무인 과일 판매점, 무인 문구점과 같이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인 세탁소와 무인 카페, 무인 골프장 등 무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판매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처럼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의 종류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헌 옷, 그리고 대형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량제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데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짜리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버려야 합니다. 닭뼈나 달걀 껍데기와 같이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버리거나, 수거통이 없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로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빈 병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헌 옷이나 신발, 가방, 담요와 같은 것은 의류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 의류 수거함은 보통 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주택가의골목,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장 안에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책상이나 침대,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이 큰쓰레기를 말합니다.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후 집 앞에 버려야 합니다. 스티커 비용은 쓰레기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간 이동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으며, 주요 노선들은 심야 시간에도 운행됩니다. 가까운 도시 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도시 곳곳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어 철도를 이용한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열차에는 KTX, SRT와 같은 고속 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과 같은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고속 열차는 요금이 좀 비싸지만 빠르고 편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한국의 최남단 도시인 부산까지 2시간 반쯤 걸립니다. 고속버스나 기차 등의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표를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 안에서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손을 들어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한국은 개인의 종교가 존중 받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2023)에 따르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2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17%), 천주교(11%)의 순입니다.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신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개신교 신자들처럼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와 부처님의 탄생일인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나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도로명 주소

한국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도로명 주소란 지정된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의 이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를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만 있으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도로명 주소는 영어와는 반대로 큰 단위부터 시작하여 점차 작은 단위로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시/도** :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나 '도'를 나타냅니다. 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시/군/구** : '시'나 '도'의 하위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구'나 '군', '도'의 경우 '시' 또는 '군'이 쓰입니다. 위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 **도로명** :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8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로'보다 좁은 길은 '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달구벌대로', '테헤란로', '소담길'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직로'와 '종가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건물 번호** : 해당 건물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표시합니다. 위에서는 161과 345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한복은 색상이 화려하며, 디자인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날에는 전통 한복을 입습니다.

남성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조끼로 구성되고, 여성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됩니다. 한복은 자연스러운 주름과 풍성한 실루엣으로 모든 체형의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복은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요즘에는 전통 한복을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한복은 전통 한복보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언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의 변화는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의 연령이나 역할 등에 따라 색깔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어머니는 보통 푸른색 계통의 점잖은 한복을 입고, 신부의 어머니는 분홍색 계통의 단아한 한복을 입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복 페스티벌이나 한복 패션쇼 등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

한국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고층 아파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하고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트, 운동 시설 같은 편의 시설과 각급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도 안 됩니다. 이처럼 단독 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낮지만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도시 근교에 전원 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도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학교나 직장 근처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침실이나 화장실, 주방이 한 공간에 있어 편리하고,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수도인 서울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조선 시대의 궁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궐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창덕궁은 '비원'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은 현대적인 빌딩과 어우러져 서울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에는 아름다운 전설을 지닌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굴암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을 통하여 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안동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하회마을에는 전통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1999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 기관으로, 건물과 정원이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여가 생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3.6시간, 주말에는 5.5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이 즐기는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 시청'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책 및 걷기'가 43.5%,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이 4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답답 · 통화하기'(32.8%), '쇼핑 · 외식'(26.3%), '인터넷 검색 · 영상 편집'(25.3%), '친구와의 만남'(22%)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여가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에 관한 전문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고, 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도 하였습니다. 큰 부담 없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나 풋살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도 증설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역국은 생일날 먹는 음식인데, 소고기나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끓인 국입니다. 미역국은 원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덥고 습한 여름 중 가장 더운 복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어린 닭에 인삼이나 찹쌀, 밤, 마늘과 같이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푹 끓인 음식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삼계탕을 먹으면 새 힘이 납니다.

떡국은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 소고기,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흰떡을 넣고 끓인 다음 계란 지단이나 김, 파 등을 올려 먹는 음식입니다.

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배달 앱

한국은 음식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화나 앱을 통하여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간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앱'의 등장으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배달 앱을 통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 여러 종류의 음식 중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는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평점과 리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배달 앱은 현금, 신용카드,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 앱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쿠폰을 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이 현재 조리 중인지, 배달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

한국의 병원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1차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말하고, 2차 의료기관은 병상 수가 30개 이상인 조금 큰 병원을 말합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거나 정밀검사, 복잡한 수술 등이 필요하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정부의 평가를 통과한 대형 병원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비싸지며 2,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예약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의원에 갑니다. 전문 분야가 세분되어 있어 아픈 곳에 맞는 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원에서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합니다. 다음은 진료 분야입니다.

의약품 구입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은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조제해 주고 복용 방법을 알려 줍니다. 약사가 주는 약 봉투에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 약의 명칭과 복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약사와 약국에 대한 정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사고 싶은데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https://www.pharm114.or.kr>)를 찾아보면 됩니다. 늦은 밤에 문을 여는 약국이나 휴일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열제** : 열이 날 때 먹는 약
- **진통제** : 머리나 이 등에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
- **감기약** :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 **소화제** :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 등으로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 **지사제** :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먹는 약
- **파스** :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붙이거나 뿌리는 약

한국의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나 문서, 소포 등을 보낼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외국에 물건을 보낼 때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인 EMS(Express Mail Servic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MS로 우편물을 보내면 빠르고 안전하게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좋습니다.

EMS나 국제 소포(항공편, 선편)로는 편지, 책, 옷, 화장품 등을 보낼 수 있지만 음식, 약, 현금 등은 보낼 수 없습

니다. 물론 동식물이나 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도 보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중요한 문서나 고가의 물품 등을 보낼 때는 수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기로 보내면 보다 안전합니다.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수령 후 서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체국은 우편물 서비스 외에 간단한 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계좌가 있어야 예금, 송금, 외환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보통 개인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청구서와 같이 한국 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ATM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기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업주와의 갈등 시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중소 도시 등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 전망 구축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 (www.hugkorea.or.kr)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전화 상담 안내

- **상담 전화번호:** 1577-0071
- **상담 시간:**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09:00 ~ 18:00)
- **지원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8개 언어
- **이용 방법:**
 1. **1577-0071**로 전화를 겁니다.
 2.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고유 번호**를 누릅니다.
 3. 마지막으로 별표(*)를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

어느 나라에나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사를 위해 식탁이나 밥상에 앉을 때, 어른이 중앙의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수저를 들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

작한 다음에 아랫사람이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식사를 먼저 마쳐도 어른이 식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으로는 밥과 국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동시에 들지 말아야 하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밥과 국은 개인별로 먹지만 반찬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예전에는 찌개나 찜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기도 했지만 요즘은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의자에 발을 얹거나 음식 씹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날

국경일은 나라에서 정한 특별한 날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거나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국경일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삼일절(3월 1일),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8월 15일), 한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개국을 경축하는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10월 9일) 등이 해당합니다. 국경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가정에서는 기쁨을 함께하기 위하여 국기를 게양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의 인생 중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먼저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아기의 1살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을 염원하는 돌잔치를 합니다. 결혼도 중요한 일생의례로 예전에는 전통 방식의 혼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현대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는 폐백과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돌아가시면 보통 3일이나 5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조문객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매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여 가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에는 제사의 형식도 다양화되어 추모 기도 등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의 명절

한국에는 무슨 명절이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면 따로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고 윷놀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한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갓가지 말린 나물을 먹습니다.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인 부럼을 깨물어 먹는데, 부럼을 먹으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먹고, 송편도 만들어 먹습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예전에는 추석날 밤에 여성들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둥그랗게 빙글빙글 도는 '강강술래'라는 놀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 생활 예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공공 생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해 지정된 자리에는 되도록 앉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아파트나 원룸 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되도록 뛰지 말아야 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청소기나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나 TV를 크게 틀어 놓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차례를 지켜 줄을 서고,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류 문화

한류는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고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K-팝(K-pop)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멋진 안무, 화려한 무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티에스(BTS), 블랙핑크(BLACKPINK), 뉴진스(NEW JEANS) 등의 아이돌 그룹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K-drama)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배우의 실감 나는 연기, 아름다운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태양의 후예', '오징어 게임'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한국의 패션과 뷰티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한국 K-팝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은 한국 여행에서 꼭 구매하는 물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 내 언어 예절

한국의 직장에서는 상대방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 호칭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윗사람에게는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장님'처럼 직위나 직책 다음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 명의 '과장님'이 있다면 구분을 위해 과장님 앞에 이름이나 성을 붙여 '김진수 과장님' 혹은 '김 과장님'처럼 부르면 됩니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나 후배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김진수 씨', '이유진 씨'처럼 부릅니다. '진수 씨'나 '유진 씨'처럼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이때 만일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이름 대신 '선배님'이나 '형', '누나'와 같은 가족 호칭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올바른 호칭과 함께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동료나 후배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언제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공용 시설 사용 수칙

회사에는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긴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있거나 발을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일, 이어폰을 끼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식당 밖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끗이 치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전등이나 냉·난방기를 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씩 사용하는 회사 내 시설과 달리 기숙사는 회사 동료들과 늘 함께 지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기숙사에는 개인 공간 이외에도 세탁실이나 샤워실, 휴게실, 주방 등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공용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

규칙을 잘 지키고 항상 청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는 텔레비전이나 음악 소리를 작게 하고 세탁실이나 샤워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경우에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회식은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식사 모임으로 보통 하루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회식에서는 참석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보통 업무와 관련된 대화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취미,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한국의 회식 문화는 직장 내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팀

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회식에서는 대개 식사와 함께 술이 제공되며, 상사나 동료의 권유로 술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예의를 지켜 거절해도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회식을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음주보다는 다양한 활동이나 식사 중심의 회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개인적인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회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술과 함께하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슷한 문화권에서 온 근로자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열어서 음식과 차를 나누며 즐거운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이나 명예 손상과 같은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경고나 감봉, 직위 해제, 해고 등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예방하는 것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

한국의 산업 구조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지만, 현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은 한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생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이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문화 콘텐츠 산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특성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한국은 국제 무역을 통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한국의 무역은 부족한 천연자원은 수입하고, 이를 혁신적인 기술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철강 원자재, 산업 기계 및 장비, 농산물 및 식료품 등이고,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품, 배터리 등입니다. 한국과 무역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무역의 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수출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전제품

한국의 가전제품은 최신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한국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텔레비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이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가전제품은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기능도 잘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져서 더운 날 집에 들어가서 바로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원격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유통 기한을 알려 주며 레시피를 추천하는 등의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디자인과 기능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비스포크(bespoke) 가전제품들이 출시되어,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색상과 소재뿐만 아니라 냉동실과 냉장실의 위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제균 및 탈취 기능이나 쇼케이스(홈바)의 탑재 여부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2023년 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29.1%로 1위, 유럽이 24.9%로 2위, 3위는 17.9%의 중국이며, 점유율 8.5%의 한국은 15.2%인 미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M,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그중 현대자동차는 2023년 자동차 판매량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전기차(EV)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실적에서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사용 시 주의 사항

그라인더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반 형태의 날을 가진 전동 공구로, 물체를 절단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 때 사용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하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작업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전원을 켤 때는 그라인더의 전원 스위치가 꺼진(OFF)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날을 교체할 때도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에는 보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등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라인더에 안전커버(방호덮개)를 장착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중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라인더가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절단하는 재료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킥백(Kickback)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체를 놓고 절단 작업을 할 때는 그라인더의 날이 안쪽(왼쪽)으로 향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올바른 사용법만 익혀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세계 각국은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는 태양의 빛을 활용하는 태양광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풍력 에너지, 물의 흐름을 활용하는 수력 에너지, 바다의 조류나 파도 등을 이용하는 해양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운영 비용이 낮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고갈을 막고 온실가스를 줄여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저탄소 정책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하여, 탄소 배출이나 자원 사용 등에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섬유와 패션 산업

K-드라마와 K-팝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K-패션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패션에 대한 선조들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섬유와 패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원료를 가공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섬유 산업과 섬유를 이용하여 원단을 만드는 방직 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산업화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구는 방직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섬유 공장이 세워지면서 '섬유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섬유 산업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능성 섬유와 같은 고품질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2년 한국의 섬유 산업은 화학섬유와 편직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6위라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섬유 산업의 발전과 함께 K-패션으로 알려진 한국의 패션 산업도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와 같은 국제 패션 이벤트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K-드라마의 영향으로 의류뿐만 아니라 모자와 신발, 액세서리 등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빌트인 가구

빌트인 가구는 주택이나 건물의 특정한 실내 공간에 딱 맞게 제작되어 내장되는 '붙박이 가구'를 말합니다. 옷장, 수납장, 장식장, 책장 등이 주로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빌트인 가구는 사용자의 취향 및 공간의 특징에 맞추어 설계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일반 가구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빌트인 가구는 설치와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디자인 트렌드가 바뀌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도 쉽게 교체하거나 철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빌트인 가구는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 고

급스럽고 실용적인 빌트인 가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에어컨,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빌트인으로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고 세련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

교량이나 도로, 큰 건물을 짓는 대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중장비가 사용됩니다. 건설 중장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목 장비, 운반 장비, 포장 장비 등으로 분류되는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목 장비

- **불도저:** 땅을 깎거나 평탄하게 하는 장비
- **크레인:** 무거운 것을 옮기는 장비
- **굴착기:** 땅을 파거나 암석을 옮기는 장비
- **스크레이퍼:** 도로 표면을 긁어내거나 평탄하게 하는 장비
- **로더:** 흙이나 모래를 퍼 트럭에 싣거나 운반하는 장비

• 운반 장비

- **덤프트럭:** 흙이나 자갈 등을 실어 운반하는 차량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를 섞으면서 운반하는 차량
- **트랙터:** 무거운 장비나 짐을 견인하는 차량
- **지게차:**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차량

• 포장 장비

- **그레이더:** 땅바닥을 고르거나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 **롤러:** 흙이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압축하고 지면을 다지는 데 사용하는 장비
-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를 구조물의 표면에 뿌리는 장비
-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혼합물을 도로 표면에 고르게 퍼는 장비

한국의 대규모 토목 공사

토목은 도로, 철도, 공항, 교량, 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막을 녹지로 만들기 위한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로 '사막의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도 한국의 기술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대규모 토목 공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앞바다에 있던 몇 개의 섬을 간척하여 건설한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송도국제도시와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수상 교량의 길이가 21.38km나 되는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로 주탑의 높이가 무려 238.5m에 이르는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사장교입니다.

2010년에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사장교와 육상터널, 해저침매터널(Submarine immersed tunnel)로 이루어진 총 길이 8.2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다리 중 하나입니다.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업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게 해 주며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팜은 딸기, 수박 등의 과일류부터 상추, 청경채 등의 채소류와 바질, 로즈마리 등의 허브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농업의 중요한 요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의 성장 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고, 성장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팜 기술은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한국은 스마트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는 스마트팜을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스마트팜의 보급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팜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농업의 시장 규모도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육류 소비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0kg을 넘어섰는데, 1인당 쌀 소비량(56.4kg)보다 많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즐깁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삼겹살이 꼽힐 정도로 한국인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비량이 많은 것은 닭고기와 소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삼계탕, 찜닭, 닭갈비, 프라이드치킨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한국의 프라이드치킨은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매년 여름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와 치킨 축제를 즐깁니다. 소고기는 육류 중에서도 가장 고급의 식재료로 인식되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소를 가리키는 '한우(한국의 소)'는 고급 육류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육류가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식주의자나 육류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성 고기나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식업

양식업은 연근해 혹은 인근 연안에서 조개류, 해조류, 어류 등을 양식하는 산업으로, 해양 자원 관리 및 수산물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양식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양식업은 어업을 추월하여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한국은 양식 생산량에 있어 전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연근해 양식업을 통하여 굴, 새우, 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영양소가 풍부한 해조류나 고품질의 어류 등 고부가가치의 수산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조의 수질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센서를 통해 양식장의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어 양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양식 방법을 개발하고, 양식장 주변의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세대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업 국가 중 하나로, 대형 선박 및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1970년대에 정부 주도의 핵심 산업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세계적인 조선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업체는 전 세계 대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기술력, 생산성, 가격 경쟁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R&D 및 설계, 생산 부문의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선종별 경쟁력에 있어서도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국 조선업은 기술 혁신과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조선업 선도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 접속 방법

전선을 접속할 때는 먼저 안전장갑, 롱 노즈 플라이어, 자를 준비합니다.

전선을 접속하기 전에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전원에서 전선을 분리합니다. 전선이 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젖은 손으로 작업을 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 자를 이용하여 한쪽 전선의 끝부분에서 6cm 정도 되는 위치를 재고, 롱 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전선 피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다른 전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복을 벗깁니다.

다음으로 롱 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피복을 벗겨낸 두 개의 구리선을 트위스트 방식으로 묶습니다. 두 구리선은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묶어야 하고, 다 묶은 뒤에 구리선의 끝부분은 롱 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산림 자원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이지만 과거에는 산림 자원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식목일(4월 5일)을 제정하여 나무 심기를 장려하는 한편 그린벨트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산림청을 설립하는 등 산림 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울창한 산림은 목재와 임산물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어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휴양,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벌목을 방지하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산불이 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

한국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관광 명소를 지닌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1,7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는 경주, 안동, 전주가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안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이 있는 곳입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모여 있는 한옥마을이 있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는 제주도와 설악산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멋진 해변과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위엄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

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설악산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는 웅장한 산으로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에서는 쇼핑, 음식,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으로,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등이 유명합니다. 바다에 인접한 부산은 맛집 여행으로 인기가 많고,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대구는 골목을 따라 걷는 근대골목투어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K-푸드 산업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한국의 식품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외에도 한국의 라면, 만두, 김 등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K-푸드 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과 종류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가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하였고, '불닭' 라면 시리즈는 SNS의 '불닭 챌린지'의 확산 등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 단일 수산식품으로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김은 얇고 바삭하여 식감이 좋으며,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일본 외에도 중동, 남미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토르트 식품(retort food)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미리 조리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몇 분 정도만 데우면 금방 먹을 수 있어 조리 시간을 절약하게 해 줍니다. 한국의 레토르트 식품은 삼계탕, 갈비탕, 찌개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한국 음식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 고용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1년 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4년 10개월까지 더 일할 수 있어 최장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임금 체불이나 상해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한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습니다.

취업 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하였거나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과 같은 지역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3회, 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며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근로 계약 기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임금, 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개월 수로 나타내며,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장소와 함께 업종, 사업 내용, 직무 내용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합니다. 1일 근로 시간과 함께 1일 평균 시간 외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도 표시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의 휴무 여부와 함께 휴무일의 임금 지급 여부, 토요일의 근무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임금은 월 통상 임금을 적되 기본급, 고정적 수당, 상여금의 세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을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할지 통장으로 입금할지도 적어야 합니다.

숙식 제공 여부도 중요한 기재 사항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 시설의 유형과 근로자의 부담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식, 중식, 석식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근로자의 부담액을 적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계약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등)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주거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에는 개인에게 주어진 외국인 등록번호와 함께 성명, 국가/지역, 체류 자격이 함께 표시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숙소 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따로 집을 얻어사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사무소 등)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이나 여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